

'Tour De Korea 2017' 오늘 군산 방문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도로 사이클 축제)

오늘 서수~임피~대야~개정면~월명종합경기장 내일 월명종합경기장에서 무주로 출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도로 사이클 축제인 'Tour De Korea 2017'이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군산월명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고 트루드코리아 조직위, 대한사이클연맹의 주관으로 열리는 'Tour De Korea 2017' 대회는 아시아 최고의 권위와 수준을 자랑하는 국제 사이클 대회(UCI Asia Tour 2.1Class)이다.

경기방식은 총 5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각 구간별 우승자를 가려 누계점수로 시상하는 경주운영으로 500여명이 5일간 778.9km 내외의 도로를 달리게 되며, 14일 여수를 시작으로 군산~무주~영주~충주를 거쳐 18일

서울 올림픽 광장에서 'Tour De Korea 2017'의 막을 내린다.

군산에서의 대회일정은 14일 군산서수~임피~대야~개정면을 통과해 군산월명종합경기장에서 첫 번째 스테이지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박을 한 다음 15일 월명종합경기장에서 무주로 출발하는 두 번째 스테이지를 진행하여 군산 일정이 마무리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Tour De Korea 2017 대회는 자전거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숙박시설까지 모든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여 선수 및 관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군산 트루드코리아

한편 'Tour De Korea 2017'은 유튜브, You Tube를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군산=장 현 기자

익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4년간 자격 유지

익산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2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관리에서 최상의 수준임을 인정 받는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익산병원은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안전보장활동, 지속적인 의료질 향상, 환자진료와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안전시설 및 감염, 환경관리 등 549개 조사항목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 및 서류 심사를 받았고,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우수한 평가



를 받아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2017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4년간 '인증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의료기관 인증 획득으로 추후 현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내일부터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군산시는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제로화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제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발소, 지방세 과납금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 군산시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4,472건, 총 8,300만원에 이른다.

시에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미환급 세금에 대한 환급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화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계좌 사전등록제'를 이용하면 향후 환급금 발생시에도 쉽고 빠르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방훈련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지난 12일 군산소방서(금동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훈련과 직원들에게 소화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박물관의 실제 화재상황을 가정하여 광장에 연막탄을 발포하고 관람객을 안전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무엇보다 강조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진행되었으며, 금동119안전센터의 대원들은 박물관 직원들에게 소화장비 사용요령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군산=장 현 기자

익산서동시장 식자재 마트 앞 '불법주정차' 몸살

시민들, CCTV 설치 등 강력한 단속 요구... 시 관계자, "단속 강화해 나갈 것"

익산시 남중동에 위치한 식자재 마트 앞 교통 정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당 마트 앞 도로와 골목길에는 각종 식자재들이 파레트 단위로 쌓여있고, 배달차량과 고객 등의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오전 출근시간이 되면 각종 차량들과 뒤범벅이 돼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중동에 사는 K씨(56)는 "이곳은 서동시장의 입구와 식자재 마트를 포함한 각종 상가밀집지역으로 항상 차량이 붐비는 지역이다"며, "익산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CCTV 등을 설치해 불법주정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유불력 등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섰지만 시장 통로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주차장에서 간을 최대한 줄이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시 남중동 식자재 마트 앞 도로와 골목길에는 각종 식자재들이 파레트 단위로 쌓여있고, 배달차량과 고객 등의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식자재 마트는 바로 옆에 또 건물을 짓고 있어 교통 혼잡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AI 확산 방지 '총력' 대응

AI 대응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군산시가 AI 방역활동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시에서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한준수 부시장 주재로 읍면동장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13일부터 거점소독시설 근무인원을 증원하고 이동통제 초소를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방과 정기적인 소독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여 AI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서수면과 개정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거점소독 초소의 인원을 기존 3인/1소에서 4인/1조로 보강, 대규모 사육농가 이동통제초소 17개소를 신규 설치 운영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에서는 ▲시정사내 발판 소독소 설치 ▲도매작업 후 잔존물 처리 철저 ▲각 초소별 근무점검 강화 ▲AI 방역근무자들에게 대한 위생안전 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5일부터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집중단속과 함께 일제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시, 기재부 찾아 정부예산 반영 건의

군산시는 13일 기획재정부와 소속 심의관을 방문하며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과 지원요청 활동 등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쳤다.

이번 방문활동은 부처별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어 심의 중인 상황에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차별 국비 반영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날 국비 지원을 요청한 주요 사업 내용은 ▲새만금사업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도 4호선 잔여구간(장자도~관리도) 개설 ▲고군산지역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군산항 항로수심 확보를 위한 항로임구부 준설사업비 반영 ▲군산내항을 항구도

시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한 내항 전망타워 조성사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재부 예산 심의가 끝나는 9월 초까지 방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해당부서별로 각각의 사업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군산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822억원 예산의 신규사업 32건과 1조 147억원 예산의 계속사업 268건 등 300여건의 사업에서 총 1조 969억원을 국비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장 현 기자

'익산서동축제 2017' 추진결과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주최하고 (재)익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익산의 대표축제인 '익산서동축제2017'의 추진결과보고회가 13일 익산 중앙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2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는 김주일 문화산업국장의 주재 하에 '익산서동축제2017'에 참여했던 해병전우회, 익산시자율방범대, 자원봉사단체 등 협력기관과 서동축제추진위원회, 익산시, (재)익산문화재단 등이 참석하여 주요 프로그램 및 축제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호원대학교에서 실시한 자체평

가에서 제시한 대표 프로그램의 보강, 차량통제 및 주차관련 문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의 연계 방안, 외국인 관광객 참여 방안, 축제추진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다.

익산시 관계자는 "서동축제는 우리시의 정체성을 확고하고 타 지역과 외부에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큰 행사이다. '문화관광 원년의 해'에 치러졌던 2017년 서동축제의 부족하고 미비했던 점들을 최대한 보완하여 이후 서동축제가 우리시의 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의 대안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